

관광객 100만시대 개막 온힘

임실군, 치즈축제 대성공 향후 발전방안 모색 올해 말까지 내년도 축제 세부추진계획 수립

임실군이 역대 최대 관광객 유치로 대성공을 거둔 임실N치즈축제를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심 민 임실군수는 23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실과소장 및 읍면장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역대 최대인 45만명의 관광객 유치와 400여원의 지역경제과급효과를 달성한 임실N치즈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격려하는 한편 지속적인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등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축제 준비 및 운영, 주차 및 교통대책, 홍보, 프로그램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지하게 열렸다.

이와 함께 천만송이 국화전시와 임실치즈 및 유제품을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 판매장과 향토음식점 운영의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행사의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세심한 분석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 중심으로 진행됐다.

심 군수는 "올해 행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다소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은 세심한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추진방향과 단계별 로드맵을 조속히 확정해 2018년도 축제를 신명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적으로 논의된 핵심과제로는 ▲축제장 입구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임실교차로 부근 도로개선방안과 셔틀버스 운행노선 및 대기장소 편의시설 확대방안 ▲산업적 축제로 거듭나기 위한 지역화폐발행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임실치즈마을과

임실치즈테마파크가 관광명소로서 연중 관광객을 확보할 수 있는 관광진흥 및 활성화 정책 확대방안 등이다.

군은 이날 보고회 내용을 토대로 내달 초 2017 임실N치즈축제 자체평가 보고회를 갖고 2018년 세부추진계획을 올해 말까지 완벽하게 수립, 차근차근 내년 행사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심 군수는 "3년차를 맞아 큰 결실을 이루어냈지만, 이제부터는 정착단계로 넘어가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한층 더 새로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신선한 콘텐츠 개발과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군수는 특히 "올해 축제에 대한 정확한 성공분석과 개선점을 잘 파악해 앞으로 5년 내에 매년 100만명이 찾는 축제를 만들어 가자"며 "장미공원이 완성되면 봄에는 장미꽃과 함께 하는 축제도 만들고, 세계치즈 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목표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치유관광 일변지 입증

건강장수과학특구, 우수특구 선정... 성장가능성 확인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2017년 우수특구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순창군은 우수특구 선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장려상과 3,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2017년 지역특구 운영성과 우수특구 선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가 전국에서 운영 중인 특구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했으며 특구사업성과, 특화사업 추진, 재원조달, 규제특례활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순창건강장수과학특구는 건강장수연구소를 중심으로 치유의 숲, 산림욕장, 건강장수체험과학관, 식문화실습관, 의농업전시관, 농특산물 원료 및 생산품 보관시설 등 힐링관광 인프라 구축에 노력해 왔다. 또 노후준비교육, 바른식생활교육, 바른먹거리당뇨학교, 태초먹거리학교 및 전국당뇨애프로, 구곡산단 힐링노하우교육 등 건강장수 아카데미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또 농지전용허가 등 다양한 규제특례를 활용하고

온라인을 통한 독창적 마케팅 사업도 성과를 냈다.

또 음료기업을 시작으로 지속적 기업유치와 관광객 유입 확대에 대한 성과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성공적 특구 운영의 성과로 인정받았다. 군은 건강장수특구 일원을 대한민국 치유관광 일변지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의료관광 치유 휴양단지 조성, 향노화 향당노 신제품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오군수 소장은 "건강장수과학 특구는 건강과 장수라는 독특한 테마를 활용한 국내 유일의 특구로 그 상징성이 매우 크다"면서 "순창이 대한민국 치유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순창민의 색깔이 묻어나는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건강장수특구는 순창군 인계면 쌍암리 산 150번지 일원 296,467㎡에 조성됐으며, 지난 2008년 최초로 건강장수과학특구로 지정되어 치유와 관광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순창=이영철 기자

지역 매아리



남원시 왕정동행복센터 행사 호평

남원시 왕정동행복복지센터에서는 지난 14일 실시한 '다 같이 놀자, 동네 한바퀴'의 평가회를 4개(남원중, 남원초, 남원하늘중, 남원용성초)학교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3개(동충, 죽향, 왕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참석한 가운데 23일에 가졌다.

이날 평가회에서 '다 같이 놀자, 동네 한바퀴'는 행정과 남원교육지원청이 후원하여 지역사회 교육 공동체 사업으로 주민과 학생 그리고 학부모 모두 주체가 되어 준비된 행사 이었던 만큼 기념식(의전행사)이 생략되었으며, 함께 배우고, 즐기고, 보고, 느끼고, 나누는 좋은 기회였다는 평가를 했다.

왕정동행복복지센터 유세환 동장은 "앞으로도 행정, 남원교육지원청, 각 학교,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문화 나눔 확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쌀모으기 운동으로 나눔정신 실천 '귀감'

남원시자원봉사센터 기부문화 조성 앞장



남원시자원봉사센터가 제25회 흥부제를 맞아 23일 '좁도리 쌀 모으기 선포식 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행사에 참석한 이환주 시장도 나눔에 동참하고 있다.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배종철)는 제25회 흥부제를 맞아 23일 남원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 100여명과 함께 나눔의 흥부정신 구현과 흥부 떡 나눔 행사를 위한 '좁도리 쌀 모으기 선포식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나눔과 이웃을 사랑하는 흥부 정신 계승을 위하여 추진된 흥부사랑 좁도리 쌀 모으기 행사는 자원봉사단체장, 자원봉사자, 흥부제전위 관계자,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임원진, 운영위원, 정회원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좁도리 쌀 모으기 시연, 떡 나눔 및 시음, 떡 매치기 체험 순으로 진행되었다.

흥부사랑 좁도리 쌀 모으기 행사는 생활 속의 좁도리 쌀을 모아 흥부 사랑 떡을 만들고, 남은 쌀은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고 인부를 살피는 사랑 나눔 운동으로 자원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행사이다.

본 행사를 추진한 (사)남원시자원

봉사센터 양경남 센터장은 "더불어 사는 지역 사회 건설을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한 곳에 모여 쌀 모으기 행사를 통해 하나가 되는 느낌을 받았으며, 앞으로 남원시에 사랑과 희망의 나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환주 남원시장은 "좁도리 쌀의 작은 나눔을 통해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작은 것이지만 나눔을 실천하면서 이웃

을 돌보는 훈훈한 세상을 만들어 주기를 바라며, 남원시에서도 함께 하는 세상, 나눔의 흥부정신 실천을 위해 어려운 이웃과 늘 함께 하는 따뜻한 남원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흥부사랑 좁도리 쌀 기부에 관심이 있는 시민은 언제든지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636-1365)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장학재단 이사장 사망에 사업 좌초 위기… 장학금 지급 어찌되나”

임실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 이성재 의원 등 5명 의원 심도있는 질문 쏟아져

임실군의회(의장 문영두)는 23일 제 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2017년도 군정 전반에 대한 군정질문을 가졌다. 이번 군정질문에는 전남군 부의장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군정질문을 나섰다.

이날 첫 질문에 나선 유정금 산업건설위원장은 내년 개원 예정인 임실봉황인재학당 운영을 위한 준비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물었다. 학생 선발기준과 제외학생에 대한 대책 및 대상자가 중학생으로만 되어 있어 고등학교부터 전주 등 타지역으로의 인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어진 군정질문에서 이성재 의원은 “재단법인 덕진장학재단 이사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그동안 진행해왔던 장학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며, 기 선정된 장학생의 향후 장학금 지급계획과 추후 덕진장학재단 운영계획, 그리고 덕진 장학재단 기본재

산의 법적 대응계획에 대해 소상히 물었다.

장종민 의원은 “행정재산인 관공 구시장부지가 만6년이 지난 시점에도 아무런 계획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하며, “시법적으로 관공 구시장에 무주택 저소득층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아파트를 건립하여 우리군의 인구증가와 젊은 세대들이 거주하는 활기찬 임실군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한편, 김양중 운영행정위원장은 우선 “오수견 육종사업은 1999년부터 중모견 구입을 시작으로 2016년도까지 14억 8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지적하며, “올해에는 오수견 육종 연구소 및 커뮤니티센터를 건립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으나 오수의견사업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오수의견사업(육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와 추진할 경우 향후 방향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전남군 부의장은 세계경기 불황으로 치질이 우려되는 일진제강의 제2농공단지 투자계획에 대한 대책을 서면 요구했다.

한편, 임실군의회는 다양한 군정질문으로 군민을 대표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공금증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 장류축제 농특산물 불티 판매실적 8000만원 달해

순창장류축제 기간 중 지역 농특산물 판매금액이 8,000여만원에 달해 지역 농민들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 걸로 나타났다.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개최된 제12회 순창장류축제 기간 중 지역 농특산물 판매는 농특산물 직판장, 특산물 판매코 등에서 진행됐으며 농특산물 직판장 3,000만원, 특산물 판매코너 2,500만원, 축산물 2,500만원 등 총 8,0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다.

이처럼 축제기간 중 운영한 농특산물 판매점이 높은 실적을 올린 이유는 청정 순창의 품질 좋은 농산물을 농민들이 직접 판매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신뢰를 심어 줬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의 성공을 위해 농민들이 판매부스를 운영했는데 성공을 거둔 것 같아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농민들이 직접 도시민들과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 농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영철 기자

임실엔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권주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과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